

D1002 혼합1형(VUL종신)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혼합1형(VUL종신)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혼합1형(VUL종신)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58705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6.07.24
운용기간	2020.07.01 ~ 2020.09.30	존속기간	추후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된 주식투자로부터 부분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며, 주로 국공채, 특수채,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우량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자본 이득과 이자 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듀레이션,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혼합1형(VUL종신)	자산 총액 (A)	338,238	352,338	4.17
	부채 총액 (B)	1,907	1,324	-30.55
	순자산총액 (C=A-B)	336,332	351,014	4.37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205,203	206,374	0.57
	기준가격 (E=C/D×1000)	1,639.02	1,700.86	3.77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주식부문] 3개월 간 종합주가지수는 10.4% 상승하였습니다. 7월 시장은 가파른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지표 반등과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진행 뉴스, 각국 부양책 기대감 등을 바탕으로 월중 고가 및 월말 증가기준 연초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8월 미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중론이 하락변동성을 촉발시켰으며, 9월 미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으로 일부 안정화되었으나, 유럽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섀도우 우려와 미국 대선일정을 앞둔 경제심리가 작용하는 가운데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기계, 화학업종이 시장 성과를 상회한 반면, 기타, 의약품, 은행, 음식료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수급측면에서는 외국인인 2.7조, 기관이 10.8조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13.4조를 순매수했습니다.

3분기 펀드는 3.77% 상승하여 벤치마크 대비 0.84%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KOSDAQ, 운송장비,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높은 투자비중을 유지한 부분이 긍정적인 성과로 작용하였고, 종목별로는 한국금융지주, 현대차, 한화솔루션 등이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서비스, 기계, 철강금속업종에 대한 낮은 투자비중과,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등의 종목선정이 성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동 기간 포트폴리오는 저점매수 관점에서 LG전자, 삼성전자, POSCO 등을 비중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차익실현 및 리밸런싱 관점에서 LG화학, SK하이닉스, 두산퓨얼셀 등을 비중축소하였습니다.

[채권부문] 7월 금동위에서 한은 총재가 '부동산 시장만 보고 통화정책을 펼칠 수 없음'을 언급하고,

국내 2분기 GDP가 크게 부진하면서 채권시장은 분기 초 강세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 상승과 4차 추경 편성 가능성, 8월 금동위 당일 국제매입과 관련한 한은 총재의 신중한 스탠스 확인 등으로 분기 중 한때 채권시장은 급격히 약세로 반전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4차 추경규모 확정 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인식과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조치 등으로 분기 말로 가면서 금리상승폭이 축소되며 전 분기 대비 보험세로 마감하였습니다.

3분기 방향성 전략은 펀드 성과에 제한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만, 1) 증가물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임에 따라 동 구간을 벤치마크보다 높은 비율로 유지한 점 2) 3년 이하 AA- 등급 여전채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펀드 내에서 여전채 비중을 벤치마크보다 높게 유지하였던 섹터전략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3분기 펀드 성과는 벤치마크보다 양호한 성과를 시현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주식부문] 매크로 측면에서는 정책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실물 및 유동성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월중 유럽 코로나 재확산, 미국 5차 경기부양안 협상 난항, 트럼프 대선 불복 여지 표명 및 월말 트럼프 코로나 확진에 따른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미국 정책불확실성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프라이즈지수 및 기대인플레이션 지표는 지난 7~8월경 고정 형성 이후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7월 FOMC 의사록 발표 전후부터 통화정책 논조와 연준 대차대조표 증감 수치 공히 속도조절 기조였던 바, 통화증가율과 산업생산증가율의 차를 의미하는 잉여유동성 지표 또한 후행적으로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 패턴상 유동성장세에서 실적장세로의 전환 과정으로 해석 가능한 상황입니다.

3분기중 글로벌 위험자산 변동성이 심화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변수들과 더불어, 미국의 전기차 선도기업인 테슬라의 배터리 설명회에 대한 실망감, 미국 수소차 개발기업인 니콜라의 사기 의혹 등 기술주 기업들의 개별 약재들이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켰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추가적인 유동성 모멘텀도 둔화되고 있는 바, 향후 기업이익에 기반한 실적장세로 진입하기 전까지 마찰적 성격의 기간조정 구간이 전망됩니다. 스타일 및 업종 분산 투자로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관리해야 하는 기간임과 동시에 내년을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판단합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실적 상황이 가능한 산업과 기업 분석, 미 대선 등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수립에 바탕하여 내년을 대비한 선제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해갈 계획입니다.

[채권부문]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으로 4차 추경에 따른 공급부담은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지만 12월에는 비경쟁용선이 없어 10~11월 동안 월 최소 15조원 이상이 발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공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한은의 국제매입 기대감이 실제 국제발행부담과 상충되며 4분기 채권시장은 국고채 3년 0.75%~0.95%, 5년 1.00%~1.28%, 10년 1.25%~1.60%의 레인지 속에 박스권 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당분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 함에 따라 듀레이션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며 레인지 트레이딩을 통하여 조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커브의 경우 스프레드 축소 압력이 우세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장단기 스프레드가 60bp 상회시 장기물 비중을 늘려 대응할 계획입니다. 크레딧의 경우 등급 및 종목별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강보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크레딧 비중을 소폭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혼합1형(VUL종신)	3.77	9.23	5.02	6.54
(비교지수 대비 성과)	(0.83)	(0.47)	(1.12)	(0.99)
비교지수(벤치마크)	2.94	8.76	3.90	5.55

※비교지수(벤치마크): KIS종합채권지수 X 65% + KOSPI X 25%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낸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혼합1형(VUL종신)	6.54	5.87	6.61	14.87
(비교지수 대비 성과)	(0.99)	(0.52)	-	(-0.63)
비교지수(벤치마크)	5.55	5.35	6.61	15.50

※비교지수(벤치마크): KIS종합채권지수 X 65% + KOSPI X 25%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낸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15,174	2,377	0	2	-11	0	0	0	0	45	-858	16,728
당기	12,369	1,172	0	0	19	0	0	0	0	28	-870	12,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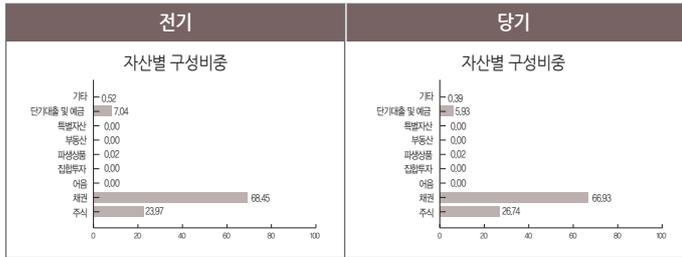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1.00)	94,230 (26.74)	235,831 (66.93)	0 (0.00)	0 (0.00)	2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0,907 (5.93)	1,367 (0.39)	352,338 (100.00)
합계	94,230	235,831	0	0	2	0	0	0	0	20,907	1,367	352,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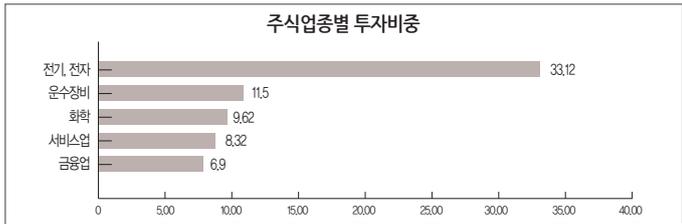
※ () : 구성비중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단위: %)

업종명	비중	업종명	비중
1 전기전자	33.12	6 IT H/W	4.57
2 운수장비	11.50	7 유통업	3.60
3 화학	9.62	8 의약품	3.31
4 서비스업	8.32	9 음식료품	2.71
5 금융업	6.90	10 기타	16.35



주)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채권	국고01500-5003(20-2)	8.97	6 채권	인천도시공사174	2.67
2 채권	국고02375-2712(17-7)	6.95	7 채권	인천도시공사175	2.67
3 주식	삼성전자	6.07	8 채권	BNK캐피탈198-1	2.60
4 채권	국고01875-2906(19-4)	4.48	9 채권	하나금융저주41-2	2.55
5 단기상품	한국저금중개REPO매수(20200929)	2.84	10 채권	통안00590-2107-01	2.53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주식

(단위: 주, 백만원, %)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삼성전자	367,428	21,384	6.1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 채권

(단위: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1500-5003(20-2)	32,130	31,592	대한민국	KRW	2020-03-10	2050-03-10		N/A	8.97
국고02375-2712(17-7)	22,620	24,494	대한민국	KRW	2017-12-10	2027-12-10		N/A	6.95
국고01875-2906(19-4)	15,100	15,772	대한민국	KRW	2019-06-10	2029-06-10		N/A	4.48
인천도시공사174	9,000	9,402	대한민국	KRW	2018-11-08	2023-11-08		AA+	2.67
인천도시공사175	9,100	9,400	대한민국	KRW	2019-02-18	2024-02-18		AA+	2.67
BNK캐피탈198-1	9,100	9,170	대한민국	KRW	2020-02-07	2023-02-07		AA-	2.60
하나금융저주41-2	8,600	8,977	대한민국	KRW	2018-01-17	2023-01-17		AAA	2.55
통안00590-2107-01	8,900	8,905	대한민국	KRW	2020-07-09	2021-07-09		N/A	2.53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REPO매수	신영증권	2020-09-29	10,000	0.60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서장	41	78	2,505,667			2119000125
이대석	차장	38	78	2,505,667			2119000109
김태현	과장	37	78	2,505,667			2119000109
최명혁	사원	28	78	2,505,667			2119000110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현재	최명혁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82	0.02	88	0.03	
판매회사	542	0.16	579	0.17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8	0.00	9	0.00	
일반사물관리회사	14	0.00	15	0.00	
일부합계	646	0.20	690	0.20	
기타비용	1	0.00	1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 - 중개수수료	91	0.03	82	0.02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수수료	0	0.00	0	0.00
	합계	91	0.03	82	0.02
증권거래세	121	0.04	98	0.03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할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 · 비용비율(A)	매매 · 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7922	0.0937	0.8859
당기	0.7922	0.0965	0.8887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율

(단위: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 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745,072	39,948	731,802	39,048	44.09	174.94

※ 매매회전을율이란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매매회전을율이 높을수록 매매거래수수료(0.1% 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비용이 증가합니다.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을율 추이

(단위: %)

2020-01-01 ~ 2020-03-31	2020-04-01 ~ 2020-06-30	2020-07-01 ~ 2020-09-30
53.44	60.03	44.09